

# 안전대진단 중간점검 9% '안전 미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안전대진단의 중간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실장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달 8일 시작돼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14만2236곳이다.

지난 20일 기준 7만7905곳에 대한 민간 합동점검을 완료해 진도를

## 행안부, 오늘 중앙부처· 시도 실장급 회의 개최 7만7905곳 점검 완료...7033곳이 안전미흡 지적

54.8%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4%보다 5.4%포인트 높다. 점검 인력 10만8338명 가운데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은 39.7%로 지난해(14.6%)보다 2.8배에 달해 내실있는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행안부 측 판단이다.

점검결과 안전 미흡사항으로 지적된 곳은 총 7033곳이다. 점검 완

료된 시설의 9.0%에 달한다. 7033곳 중 3380곳은 경미해 현장 시정조치를 했다. 2234곳은 보수·보강, 1419곳은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지적된 사항으로는 안전조치 위반, 식품 위생·취급기준 미흡, 소방·전기시설 불량 및 관리 소홀, 건축물·시설물의 일부 부식·균열

등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봄 행락철 안전대책도 살펴 본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안전대진단과 봄 행락철 안전대책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대진단 기간 중 발견된 문제점은 신속히 조치해 봄철 나들이 등 여가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 방향제·세정제 등 위해 우려제품 50종 회수 조치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기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업체의 제품 50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위해 우려제품 중 지난해 말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 신고한 제품들이다.

이번에 회수되는 방향제 1종은 폴알데하이드 안전 기준(12mg/kg)을 2.3배 초과한 28mg/kg 검출됐다(주)허브패밀리의 '아로니카 오리진' 필로우 스프레이-오렌지 시더우드 제품이다.

나머지 49종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기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날의 스누피 우드 스타크 석고방향제,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의 디퓨저, (주)영남스의 하이홈 등이다.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에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사)한국유아인소권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위반 제조·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환불)하면 된다.

유통·판매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돌려보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해야 한다.

환경부는 위반업체의 회수 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 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개미집을 찾아라 세종시 연기면 무궁화대마공원에 27일 개원한 '무궁화유아숲체험원'에서 어린이들이 숲체험을 하며 동성한 자연을 만끽하고 있다.

## 광주 교육NGO "학부모회 선거, 비민주적-불합리"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가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거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며 교육청에 지도감독과 시정을 촉구했다.

27일 광주시교육청과 두 단체에 따르면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인 '광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정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과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돼 있다. 특히 임원선거와 총회는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다. 그러나 두 단체가 초·중·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A초교와 B중, C고 등은 학부모 임원 선거를, 또 다른 일부 학교는 학부모 총회를 각각 학교장이 공고했고 학부모 총회를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여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한 곳도 있었다.

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여넣기식으로 학부모 총회를 진행하다 보니 유치원 학부모는 총회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도 못하는 실정이고,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 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보장받지 경우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되고 광주교육청이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실은 상반된다"며 "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

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췄을 뿐 실제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회에 내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회 임원선거와 총회 관련 전수조사, 조례와 규정 위반 시 제공고, 학부모 총회와 교육과정 설명회 분리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은홍 기자



## 20년전 도난 피카소 진품 네덜란드서 회수

20년 전 프랑스의 앙티브르에 정착해 있던 한 사우디아라비아 부부의 요트에서 도난당했던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한 점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회수됐다고 네덜란드의 미술품 추적 전문 탐정 아르부르 브란트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회수된 작품은 피카소가 1938년 그린 '여인의 상반신'(Buste de Femme)으로, 브란트는 이 그림의 가치를 약 2500만 유로(약 319억원)로 추산했다.

그는 암스테르담의 한 사업가가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몇년 간 이 그림을 추적해 왔으며 협상 끝에 이 사업가로부터 그림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브란트는 아돌프 히틀러가 소장했던 청동 말 조각상을 찾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브란트는 피카소 그림이 도난된 후 많은 위작들이 나타났지만 모두 가짜로 판명됐으며 하지만 이번에 회수된 그림은 전문가들에 의해 진품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경찰 미술품 및 골동품 범죄 수사 책임자는 "도난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며 "그래서 회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수와 관련해 어떤 체포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림이 무사히 회수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 예멘 병원 공습으로 어린이 등 7명 사망

예멘 북서부의 한 병원이 26일 공습을 받아 7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국제 구호단체 세이프 더 칠드런이 밝혔다.

이 병원을 후원해온 세이프 더 칠드런은 사망자 가운데 4명은 어린이라고 말하고 사상자 외에 어른 3명이 실종됐다고 덧붙였다.

세이프 더 칠드런은 리타프의 병원이 문을 연 지 30분 뒤인 이날 오전 9시30분(현지시간)에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이 한창 분주할 때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이번주 초 지난해 예멘에서 한달 평균 37명의 어린이들이 외국군의 폭격으로 죽거나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세이프 더 칠드런은 이러한 병원 공격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헬레 소냐-슈미트 세이프 더 칠드런 대표는 "병원과 민간인 밀집 지역에 대한 무차별한 공격으로 무고한 어린이들과 병원 직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예멘에선 전쟁의 기본적인 룰마저 무시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 뉴욕 근교 홍역 비상...미접종아동 외출금지

미국 뉴욕시 북부 교외의 라클랜드 카운티가 지난 해 가을부터 150명이 넘는 홍역환자가 발생했다며 26일(현지시간) 홍역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는 30일간 효력이 유지되는 비상사태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공공장소에 나오지 못하게 금지함으로써 부모들에게 이 문제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현지 당국은 밝혔다.

라클랜드 카운티의 에드 데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최근 홍역 전염 상황을 조사하는 보건당국의 요원들에게 조사를 막고 저항하는 등 비협조적인 사례가 급증하는데 대한 방어책이라고 밝혔다.

라클랜드의 홍역 발생이 가장 집중된 곳은 유대정교회 주민들의 주거지로 이곳의 백신 접종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18세 이하의 홍역예방 백신을 맞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쇼핑 몰, 문화센터, 학교, 식당, 심지어 교회 같은 종교시설의 출입까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최고 6개월간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카운티 당국은 이번 비상사태 선언이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집중 단속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여부로 경찰이 사람들을 체포한다는 것은 웃기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부모들이 확실하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데이 시장은 말했다.

라클랜드는 2000년도에 뉴욕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공식 발표되었던 홍역의 최대 발생지이자 가장 오래 전염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다.

뉴스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제치로에게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건강검진

구강  
검진

심장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